



Tongues in the Bible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James W. Knox 지음
이우진 편역

KJ 도서출판 **킹제임스**
King James Bible Publications





Tongues in the Bible

By James W. Knox

Korean Translated and published by Permission

© 1999 by KingJames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지 은 이 | James W. Knox

옮긴이 | 이우진

재판발행 | 2017년 3월 15일

발행처 |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 1999. 6. 18. 제17-292호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81 엘림빌딩 지하1층

전화번호 | 0505-856-1997

홈페이지 | www.ilovekjb.com

표지디자인 | 최애경 choilove72@hotmail.com

내지디자인 | 장한디엔피

ISBN 978-89-89741-19-0 / 정가 1,000원

이 책은 James W. Knox의 책, Signs, Wonders and Miracles의

Chapter 1: The Apostolic Gift of Tongues,

Chapter 2: The Corinthian Use of Tongues를 번역 및 요약한 것입니다.

For we can do nothing against the truth, but for the truth,

(2Corinthians 13:8)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고린도후서 13:8)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가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Tongues in the Bible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1. 사도들의 표적으로서의 방언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방언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아무도 알아 들을 수 없는 재잘거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방언은 말이며 언어입니다. 우리말 흠정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언어라고 번역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의에서는 편의를 위해 방언이라는 단어와 언어라는 단어를 모두 사용할 것이지만 모두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서는 “알지 못하는 언어”, “이상한 언어”, “다른 언어”, “여러 가지 언어”등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역자

소위 방언의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의 신앙은 전부 이 방언에 기반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언을 하는 것은 모두 사탄의 역사라고 믿는 사람도 있는 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 3





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에 대해 공부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올바른 연구를 위한 초석을 놓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경을 연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전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고전 2:12-13)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2:15)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특정한 구절을 따로 떼어서 문맥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증명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성경을 통해 특정한 교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성경 구절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되며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구절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시대가 거짓 교리에 빠지게 된 원인은 다음의 두 가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1) 성경의 사적인 해석 : 이것은 사람이 성경을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감정에 입각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특정한 교리

4 |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를 가르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 (2) 진리를 잘못 적용함 : 이것은 성경에 나온 교리를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를 준비함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족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과거에 구원받기 위해 방주를 준비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른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기 위해 방주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진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고 거짓 교리를 가르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13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 요한이 과도기적인 기간의 표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까지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사역 기간 중 구약성경의 율법을 강해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은 간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음란한 마음으로 여자를 쳐다보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율법의 문자에만 국한되어 있던 생각에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죄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까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 5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요한은 주님이 율법의 성취라고 지목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처음 7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더한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8장 이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통해 어떤 개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파한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의 경우 7장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구주께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세상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다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는 구약성경 곳곳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회심 이전에는 이러한 놀라운 진리가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골1:26)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을 통해 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리는 율법과 선지서에 제시되어 있지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실 때까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벧전1:10-12).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하기 전까지 신약성경은 존재할 수 없었고 믿는 자들은 오직 구약성경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교회가 믿는 교리가 바른 것이라고 증명하기 위해 신약성경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약성경

6 |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이 완성 되기 이전에 사도들과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은 침례 요한이 마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약성경이 전부였습니다. 동물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라고 2000년이 넘게 믿어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율법)와 엘리야(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은혜)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표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교리를 확증하기 위해 신약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과도기적으로 그러한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과도기적인 상황을 이해한다면, 방언에 대한 문제가 왜 그토록 혼란스럽고, 논쟁적이며, 위험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방언에 대한 언급은 모두 과도기적인 상황에서만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이 모두 완성되기 이전의 과도기적인 시기에 신약성경의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방언이라는 은사가 사용된 것입니다. 방언을 비롯한 다른 표적으로서의 은사가 사용되던 시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과 같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신약성경이 아직 존재하지 않던 시기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언을 비롯한 은사들은 아직 기록된 말씀으로 무엇을 확증





할 수 없는 과도기적인 기간에 주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방언이 사용된 성경의 문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마가복음 16장 :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아직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으셨던 시기.
- (2) 사도행전 2장 :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절하기 이전의 시기(행7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기 이전의 시기(행 8-10장).
- (3) 사도행전 10장 :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향하신 이후 아직 신약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의 시기.
- (4) 사도행전 19장 : 침례 요한의 가르침만을 따르고 있는 자들과 관련해서.

신약성경의 교리는 과도기적인 다리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과도가 끝난 이후의 안전한 땅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 뒤에 열한 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강박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





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막 16:14-18) 본문의 문맥은 명확하게 이러한 기적과 표적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함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매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막16:19-20)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복수형)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표적으로서의 은사는 단수, 즉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복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 (1) 마귀들을 쫓아내는 능력
- (2) 새로운 언어들로 말하는 능력
- (3) 뱀들을 집어 올리는 능력
- (4) 치명적인 것을 마시지만 해를 받지 않는 능력
- (5) 병든 자들 위에 손을 올리면 그들이 낫게 되는 능력

주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11제자들에게 주신 이유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하기 위함이었음이 명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의 은사는 다섯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은사를 가진 자는 다섯 가지를 모두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행하지 못한다면 그는 사도의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행2:1)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행1:8) 성령님을 기다렸고 주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 중 누구도 성령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성령이 임할 때까지 반복 해서 찬송을 부르지 않았고 은사를 달라고 헛된 반복을 하며 수동적인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모여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선물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물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받을 자격이 없어도 주는 것입니다. 달라고 조른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노동의 대가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도들은 모두 차별하게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달라고 조르거나 때를 쓸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 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행 2:2-3) 여기서 무엇인지 보일 수 있게 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믿는 자들 위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위기가 뜨거웠거나 더웠다는 표현이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





이” 실제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불의 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불이라는 표현이 나오므로 우리는 실제로 그 다락방에서의 광경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락방에 불이 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장면을 마태복음 3:11에서 말씀하시는 불침례의 성취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침례는 메시아를 거부하는 자들이 불호수에 던져져서 그 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계20:11-15).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행2:4)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다락방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동시에 일어났지만 이것은 서로 분리할 수 있는 다른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실한 자들 곧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행2:5)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다윗의 왕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날을 선택하셔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각국으로 퍼져있던 유대인들을 한데 모아 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곳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전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은 전할 메시지와 청중의 언어를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이 널리 퍼지매 그 무리가 함께 와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말로 말하는 것을 각 사람이 들으므로 당황해하더라.”(행 2:6) 각 지역으로부터 모인 유대인들은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방언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재잘거림을 듣고 놀란 것이 아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란 것입니다. 사도들이 한 방언은 말하는 자신들, 즉 사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모르는)” 언어였으나 그것을 듣는 청중들에게는 “알려진(아는)” 언어였습니다.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우리 언어로 듣느냐?”(행 2:7-8) 오순절때 믿는 자들이 받은 방언이 지구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어떤 재잘거림과 같은 언어라고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바대 사람과 메대 사람과 엘람 사람이며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브루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거하는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와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라. 그들이 우리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고”(행 2:9-11)

그러므로 성경에 의하면 사도들이 한 방언은 아무도 알 수

12 |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없는 재잘거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 듣지 못하는 방언은 성령님의 역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세번에 걸쳐 사도들이 한 방언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분명한 언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분위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열 두 명의 유대인 사도들이, 유대인들의 절기에, 유대인 청중에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으로 오신 메시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유대인들이 주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메시지입니다. 사도들은 누구도 방언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방언을 받아야 한다고 권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대해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기록된 신약성경의 계시도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개인적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교리도 모른 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는 침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와 매우 유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와 복음서의 침례 요한은 모두 과도기적인 시기에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순절에 믿는 자들이 받았던 성령의 은사인 방언은 말하는 자들 자신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말을 듣는 청중들에게는 알려진 언어였다
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받은 것은 아니며 믿는
자들 중에는 믿는 순간 이러한 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
습니다(이디오피아 내시의 경우). 그러므로 아무도 모르는 재잘
거림 같은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
은 거짓 교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방언은 누군가 방언을 하는 예로는 성
경에 기록된 첫째 경우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말
씀하신 것처럼, 방언은 유대인 사도들이 자신들의 말을 청중에
게 입증하는 표적으로서의 은사인 것입니다. 청중은 이러한 표
적으로 인해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고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증거하는 자들도
유대인들이고, 청중들도 유대인들이고, 회심한 자들도 역시 유대
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가르친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을 더한 교리
로 인해 회심하였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메시지는 과도기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으며 이 메시지가 참되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 바로 표적과 이적이었습니다.

로마서 9-11장에 설명되어 있는 이스라엘로부터 이방인들에게
로 복음의 초점이 바뀌는 것은 스테반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도
행전 8장부터 믿는 모든 이방인들이 이사야 53장에 근거한 주님
의 대속에 관한 말씀을 듣고,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
게 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아무런 행위도 없이 오직 말씀을





듣고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는 믿고 구원받았고 성령님을 받았지만 방언의 은사는 받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도 부활한 예수님을 살아있는 주님으로 부름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믿고 나서 성령님을 받았지만 즉시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가 회심했을 때나 침례를 받을 때 방언을 했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에게로 바뀌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알게 된 것은 신약성경의 구원은 율법에 근거한 민족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에 근거한 개인적인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36-43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무리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침례 요한의 가르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더한 내용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 청중들에게 전한 내용과 10장에서 이방인 청중들에게 전한 내용을 비교해 보면 비슷한 면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2장에서는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행2:38)였지만 10장에서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행10:43)였습니다. 성경이 모순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이 과도기적인 책이며 사도행전 내에는 과도기적인 내용이





곳곳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 은혜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국가에서 개인으로 구원의 초점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유대인들로부터 돌아서셨고, 8장에서는 이방인 개인이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9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사도가 부르심을 받으며, 10장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그러나 그는 여전히 유대적인 메시지를 전함).

사도행전 10:43-48의 내용은 놀라운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방인 가정에 방문했으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대로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아직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를 위해 필요한 것은 이것이 바른 일이라는 것, 즉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표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었을 때와 동일한 일이 벌어지면서 사도행전 10장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유대인인 베드로가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행10:44-48).

사도행전 2장에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청중들)을 위해 표적이 필요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믿지 않는 유대인(설교자)을 위해 표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완성된 신약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구원에 대한 신약성경의 교리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신약성경이 없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신약구원의 교리가 표적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믿는 자들의 연합에 대한 계시를 받기 전에는 이방인이 유대인과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유대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친족들이 복음을 믿고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으로서의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 일행은 고넬료 일가의 방언을 이해할 수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타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응답하되,”(행10:46) 사도행전 10:46의 방언은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정확히 같은 것으로 듣는 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하니라.”(행11:17)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둘째로 나온 방언을 하는 무리들을 살펴본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믿은 이방인 무리가 성령님을 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유대인 사도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또 믿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로 인해 매우 놀라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사람에 대한 성경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기록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





안 바울이 위 지방들을 두루 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나”(행19:1)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지역에 선포되었을 때 표적과 이적이 함께하여 복음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입증했습니다. 복음이 새로운 사람들(이방인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표적과 이적이 함께하여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임을 입증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방언의 은사는 신약성경이 없는 상황에서 복음의 진리를 듣는 청중에게 증표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노라, 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 하매”(행19:2-3) 사도행전 19장의 무리는 아직 복음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상태는 사도행전 2장에서의 유대인들의 상태와 정확히 같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지역과 거리로 인해 아직도 사도행전 2장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의 사람들은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보다 알고 있는 것이 많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믿으라고 계시해 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분명 믿는 자들이었지만 신약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아니었기에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거듭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신약 성경을 인용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신약성경이 기록





되기 전이었으므로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이 맞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므로 그들이 타언어들로 말하고 대언하니라.”(행19:4-6)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있는 곳,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은 사도행전 2장의 상태, 즉 침례 요한의 가르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가르침은 구약성경에 기초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구약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의 복음은 비록 그것이 구약성경에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에서 온전히 계시되기 전에는 그것이 말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것을 입증할 표적과 이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방언이 등장할 때마다 그것은 신약복음을 들여보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확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2, 10, 19장은 신약성경에 나온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 (1) 방언은 말하는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언어였다.
- (2) 방언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 19





- (3)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표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 주어졌다.
- (4) 방언은 오직 사도들의 사역과 관계된 것이었다.





2. 고린도전서에 나온 방언

교회의 일곱 시대 중 마지막 시대인 라오디게아 교회시대의 교회와 고린도교회는 유사점이 매우 많습니다. 고린도교회의 모습을 통해 라오디게아시대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구원의 교리가 제시된 로마서를 따라 고린도전서가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의 교리에 맞춰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온 일들을 흉내 낸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2에는 고린도교회의 문제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하는도다.” 이 교회는 분열의 영으로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음행이 있었고 세상 법정에 형제를 고소하는 일이 있었으며 우상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히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주의 만찬에 술 취한 채로 나타났으며 여자들은 세상적이었고 이혼이 실행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고린도교회 내에는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문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교제가 있을 수 없었고 혼동 그 자체였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 교회 내에서는 하나님의 권위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권위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이방인들로서 이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로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직무는 다르나 같은 주시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전12:1-7) 이 말씀 안에 드러난 삼위일체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4절에서 같은 성령, 5절에서 같은 주님, 6절에서 같은 하나님. 여기서는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선물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언어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타언어들 통역함을 주셨으나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고전 12:8-11) 모든 사람이 지혜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고, 모든 사





람이 지식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모두 동일한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방언(언어)의 은사도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다양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고전12:12-13) 이 말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명백합니다.

- (1)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수술(작용)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 (2)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은 인간의 몸의 지체들이 그러함과 같이 서로 다른 기능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3) 성령님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침례를 받고 들어가게 되면 그러한 사실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 (4) 이러한 드러남은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사람과 사람마다 서로 다릅니다.
- (5)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고 말하거나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 교리입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





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롬8:9)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골2:9) 이러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성령님도 영접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요일5:7)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인격이 하나인 하나님이며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접했지만 성령님은 영접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14-27에서는 한 몸의 지체로서의 연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언어들이니라.”(고전12:28) 이것은 교회 내의 다양한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사들은 연대기적으로 나열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방언(언어)이 가장 나중에 나왔지만 오순절에서 가장 먼저 발휘된 은사는 방언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은사는 신약교회의 설립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의 순서대로 나열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사에 는 중요성, 즉 일종의 등급이 있습니다.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31절)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면 모든 은사가 다 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은 은사(선물)가 존재합니다.

24 |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은사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과 같은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 (1)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았다, 혹은...
- (2) 그들이 구원은 받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성령님(Holy Ghost)이 없다.
- (3) 그들은 구원받고 성령님(Holy Spirit)은 소유하고 있을지 몰라도 성령님(Holy Ghost)은 없다.
- (4) 그들은 구원받고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혀 능력이 없다.
- (5) 그들은 구원받고 성령님(Holy Ghost)을 소유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님(Holy Ghost)을 잃어버릴 수 있거나 자신들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 같은 주장 중 그 어느 것도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징과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고전13:1-3) 은사주의자들은 본문에서 말하는 천사들의 언어가 바로 자신들이 하는 방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늘에서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종종 등장하며 그것은 명백히 히브리어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천사들의 언어를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맥을 보면 이것은 어떤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가정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산을 옮긴 적도 없고(2절),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준 적도 없습니다(3절). 따라서 1절에서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라고 한 것은 바울이 실제로 천사들의 언어로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라는 동기로 하지 않으며 그것은 아무런 유익도,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동기로 하지 않은 일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 중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나 소망보다 뛰어난 것입니다(13절). 그것은 다른 영적인 은사들보다 뛰어난 것입니다(8절). 사랑은 우리의 지식보다 뛰어납니다(9-12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고전13:4-6)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도록 하는 교리와 실행, 또 우리가 받은 은사로 인해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자신이 영적이라고 생각하게 하





는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교리는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무익한 교리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고전13:7-8)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방언(타언어)이 언제 사라지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고전13:9-10) 이 구절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기록할 때 아직 신약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알고 대언하는 일이 필요했다. 그러나 신약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완전한 것(신구약 성경 전체)이 있기 때문에 표적과 은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건전한 해석입니다. 근본주의 진영에서는 이 입장을 고수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11은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인간이지만 성인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성장해서 성인의 모습을 갖추는 것을 성경에서는 “온전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온전함”을 “죄 없음”의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12절은 우리의 이해력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은혜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은 부족한





점이 하나도 없는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전혀 부족한 점이 없는 온전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구원받은 순간 이러한 점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성경을 알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과 교회에 있어서 영적인 은사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은사는 목적이 아닌 수단입니다. 영적인 은사들이 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은사들을 받았습시다(고전12). 그러나 그들은 사랑이 없으므로 이기적인 방법으로 은사를 사용해 버렸습니다.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고전14:1)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떠한 은사보다 다른 은사를 더 사모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나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느니라.”(2절) 이것은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방언의 은사가 사용된 적이 없습





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은사를 발휘해서 유익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교회의 성도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발휘함으로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께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재잘거림과 같은 은사주의자들의 방언이 결코 아닙니다. 특히 “영 안에서”라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영”은 성령님이 아니라 인간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나니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고전14:3-4) 은사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 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전12:7)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해 은사를 발휘한다면 그것은 은사의 바른 사용이 아닙니다.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은 은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세우고 파벌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타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되 특별히 대언하기를 원하노니 타언어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 대언하는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타언어들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이나 교리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





을 끼치리요?”(고전14:5-6)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이 방언(타언어)을 하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금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령의 은사를 육신적인 방법이나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지 말고 원래의 목적대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피리나 하프같이 생명 없는 것들이 소리를 낼 때에 소리의 구분을 주지 아니하면 피리나 하프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찌 알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요?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한 것을 어찌 알리요?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리라.”(고전14:7-9)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언어로 하신다면 그것이 누구에게 유익을 주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소리)은 아무런 유익도 없고 소용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2에서 육신적인 고린도교회 성도가 자신은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는 허공에 말하고 있는 것임을 보십시오. 이것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허공이 어떤 존재와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엡 2:2).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 중에 의미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인이 되리라.”(고전14:10-11)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야만인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이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할지니”(고전14:12-13) 교회를 세워주기 위해서는 방언을 반드시 통역해야 합니다. 결국 이것은 방언이 명백하게 언어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방언이 교회에 유익을 주는 유일한 방법은 통역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이 이렇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성경을 잘 모르는 어린 그리스도인에게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것과 같은 방언을 해야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면 결국 자신의 체험에만 의지하는, 성장이 원천 봉쇄된 영적 아기들만 만들어내게 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 교회의 유익은 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세워줄 은사를 구한다면 그 교회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거나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고전14:14) 다시 2절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정의에 의하면 이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인간 자신의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이라고 하는 것도 자신이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논쟁을 위한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자신이 기도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일 자신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닌 자기 자신의 영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이해는 못하여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은 말하는 사람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기에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방언이 자신들의 기분을 좋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약도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을 파멸시키고 맙니다. 음행도 기분은 좋지만 혼을 파괴시킵니다. 술도 기분은 좋지만 몸을 완전히 망쳐 버립니다. 기분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앞의 과에서는 성경에 나온 방언을 하는 모든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경우에 사도들의 사역과 관련이 있었으며, 신약성경 복음의 진리가 이전에는 한번도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 말씀의 진리를 확증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린도교회에 와서는 성도들이 야만인처럼 말하거나, 공중에 대고 말하거나, 성령이 아닌 자신들의 영 안에서 말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32 |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해하면서 기도하며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영으로 찬미할 때에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므로 어찌 네가 드리는 감사에, 아멘, 하리요? 너는 진실로 감사를 잘하되 다른 사람은 세워지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 모두보다 타언어들을 더 많이 말하므로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만 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다섯 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리라.”(고전14:15-19)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만 마디의 말을 하는 것보다 알아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다섯 마디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방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은 스스로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교회의 유익을 구할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현대 은사주의 운동이 가르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므로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너희가 오직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될지니라.”(고전14:20) 성령님께서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화를 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서는 미리 어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에 기록된바,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으니”(고전14:21) 율법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의 민족이 주님 앞에서 번성하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타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으로되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고전14:22) 그러므로 마가복음 16장~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0장~19장, 고린도전서 12장~14장까지의 성경적 정의에 의하면 표적은 유대인 사도들에게 자신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확증하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방언을 하는 장면을 살펴보면 모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으로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지역교회에서 표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전하리라.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에 너희 각 사람 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 이니라. 대언자들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판단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이 계시되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할지니 모든 사람이 배우고 위로 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다 한 사람씩 대언해야 하느니라.”(고전 14:23-31) 고린도 성도가 방언으로 말했을 때 아무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아무도 어떤 위로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해야 배우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보다 대언(예언)이 더 나은 은사인 이유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시니라.”(고전14:33) 오늘날은 건전한 성경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의(義)로 가득 찬 사람들은 귀를 간지럽혀줄 그럴듯한 말을 듣고 싶어합니다.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라.”(고전14:34-35) 성경문제, 방언문제 다음으





로 기독교계에서 민감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교회에서의 자매들(여자들)의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에서 여자들이 잠잠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왔느냐? 혹은 그것이 너희에게만 임하였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들이니 줄 인정할지니라.”(고전14:36-37) 성경의 저자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입니다(살전2:13). 자신이 영적이라고 생각하거나, 성령에 의해 인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권고나 추천 사항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서는 다음의 사항들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 (1) 만일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재잘거림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이나 더러운 영에 의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방언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뚜렷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세상 어딘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였습니다.
- (2) 만일 통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방언을 하는 사람이 알려지지 않은 방언을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영이나 더러운 영에 의해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성경을 어기는 죄는 결코 범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 (3) 만일 같은 시각에 한 명 이상의 사람이 방언을 하거나,





혹은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방언을 한다면 그들은 성령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영이나 더러운 영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입니다.

- (4) 만일 여자가 교회에서 방언을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이나 더러운 영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방언(언어)을 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망치려는 사탄의 계략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리석거나 무지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 전에 그동안 배운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 (1) 방언(언어)은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 (2) 방언은 표적을 구하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 (3) 방언의 표적은 항상 사도들의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 (4) 방언은 명백한 언어입니다. 방언은 그것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의미 없는 재잘거림이 결코 아닙니다.
- (5) 방언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내용이 참되다는 것을 방언의 표적을 통해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 (6) 만일 집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려거든 절대로 다수





의 사람이 동시에 방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7) 만일 집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려거든 반드시 통역해야 합니다.

(8) 만일 집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려거든 여자를 통해서 하면 안 됩니다.

이 과를 마치기 전에 에베소서에서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신 교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행전과 같이 전환기적인 기간을 다루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교회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표적, 이적, 기적 등이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계시된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고린도전서에 묘사된 사람들의 상태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엡4:8-16 참조).

에베소서 4:8-16을 다 살펴보려면 많은 얘기를 해야겠지만 여기서는 주제와 관련된 것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본문에는 영적 은사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영적 은사들의 목적은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 살펴본 것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온전함”은 성도 하나 하나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여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열거된 은사들을 살펴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이것들 중 어느 것도 표적이 아닙니다. 병고침이나 통역이나 방언이나 기적이 언급되지 않았습니

다. 표적은 사도들에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확증하게 하기

38 |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지역 교회가 세워지면 필요한 것은 “온전하게 되는 것”, 즉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 열거된 은사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서에 표적으로서의 은사가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그것들이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은 항상 교리의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거짓 교리에 쉽게 미혹됩니다. 방언의 은사는 거짓 교리와 미혹으로부터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방언을 한다고 해서 미혹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미혹이 참만한 이 시대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진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을 끼치려고 한다면 결코 거짓 교리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과를 끝내기 전에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방언인 재잘거림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롬8:26-27) 은사주의자들은 이것을 해석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





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마6:7) 성령님의 중보는 재잘거림이 아니라 오히려 말이 없는 기도요 신음입니다.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엡6:17-18) 만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면 성령 안에서 걷는 것은 방언으로 걷는 것입니까(갈5:16)?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에 예수님도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동의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